

19세기 유교와 천주교 상장례 비교연구

- 기도문을 중심으로 -

이효진 (서울대학교)

1. 서론

상장례(喪葬禮)는 인간의 마지막 일생 의례로서 죽은 사람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장례는 현세에서의 삶이 끝난 망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돕는 통과의례이다. 조선(朝鮮)에서 상례는 가례(家禮)에 속하는 의례로서,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실천되어야 하는 의례였다. 조선은 유교(儒敎)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가 당시의 주류문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상장례 또한 유교의 예법에 맞게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천주교의 수용은 의례적인 전환¹⁾을 불러일으켰다.

19세기 초에도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예절에 따라 예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공식적인 천주교 상장예식서의 간행은 19세기 중반에 이루어졌다. 『천주성교예규(天主聖敎禮規)』²⁾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는데, 천주교 상장예식절차 및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고, 유교식 상장례를 비판하는 내용도 실려있다. 특히 상장예식에서 사용되는 기도문에 ‘연옥(煉獄)’³⁾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새롭게 등장한 내세관으로 기존 예식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에 천주교 상장예식에서 변형이 발생한 지점이 있다. 두 전통의 상장예식 모두 죽은 사람을 위한 의례이지만, 천주교 상장례에서는 망자(亡者)가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유교와 천주교 상장예식서에 수록된 기도문을 비교하여 천주교의 전래 이후 발생한 기도 대상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교 예식서인 이재(李穡)의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천주교의 『천주성교예규』에 수록되어있는 기도문들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두 예식서는 각각 1844년, 1864년에 간행되었으므로 거의 동시대에 사용된 예식서라고 할 수 있고, 각 전통을 대표하는 예식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유교와 천주교의 상장례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각 전통의 차원에서 상장예식을 분석하거나 죽음관·영혼관을 중심으로 두 종교를 비교하였다.⁴⁾ 최중성(崔鍾成)은 유교의 상례는 망자에게 하는 기도로 ‘ritual to’의 성격을 가

1) 1791년 진산사건(Jinsan Incident)을 말한다.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윤지충의 모친상(母親喪)을 치를 때 유교 예법을 따르지 않고 신주(神主)를 불태우고 제사를 폐지한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으로, 유교와 천주교 간 첫 의례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건이다.

2) 원제목은 『천주성교예규』이지만 현대 한국어 발음에 따라, 이하 『천주성교예규』라고 표기하였다.

3) 연옥은 천주교에서 제3의 처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중간 장소 또는 상태를 뜻한다. 12세기에 연옥 개념이 형성되어 스콜라 철학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연옥이라는 관념은 1170년 이전에는 정화하는 불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는데 이후 purgatorium이라는 정화를 위한 장소로서의 연옥이 문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자크 르 고프, 『연옥의 탄생』, 최애리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4) 유교 상례와 죽음관에 대한 연구로는 유권중,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 16 (2004): 5-32; 이용주, 『죽음의 정치학: 유교의 죽음 이해』, 모시는사람들, 2015 등이 있다. 천주교 상례에 관한 연구로는 허윤석, 「한국 천주교 상제례(喪祭禮) 문화의 토착화(土着化)」, 『司牧研究』 10 (2002): 148-182, 「1614년 『로마예식서(Rituale Romanum)』에 비추어 본 『천주성교예규(1864)』의 장례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4). 등이 있으며, 유교와 천주교의 상장례를 비교한 연구로는 황영삼, 「한국천주교'상장예식'과 한국전통상장례에 나타난 죽음이해」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5); 이완희, 「Dies Natalis(天上誕日)의 전례를 위하여: 한국의 천주교, 불교, 유교의 장례예식

지고 있지만, 천주교의 상례는 망자를 위한 기도라는 점에서 ‘ritual for’라고 언급한 바 있다.⁵⁾ 본 연구는 유교와 천주교 상장예식의 기도문 비교를 통해 상장예식에서의 기도 대상과 행위자의 관계에 주목하여 대상이 목적으로 전환된 과정을 논의할 것이다.

2. 기도의 대상

유교식 상례(喪禮)는 크게 19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삼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행되었다. 7권으로 구성된 『사례편람』 중 4권이 상례에 해당되는 만큼 예식 절차가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천주교식 상례는 6가지 절차로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유교 상례에서는 매장 후에도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등의 제례(祭禮)를 올리는 것과 다르게, 일 년에 4번 정해진 날짜에 죽은 이를 추모하는 기도를 드릴 뿐이었다. 그 밖에도 유교와 천주교 상장예식 간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교와 천주교 상장예식서에 수록된 기도문에서 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도문은 기도하는 행위자의 요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축원(祝願)을 들어주는 특정 대상이 설정되어 있다. 유교와 천주교 상례 모두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이지만, 각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유교 상장례에서 치장(治葬)할 때 토지신(土地神)에게 축(祝)을 올리는 것을 제외하면 기도를 받는 객체는 망자이지만, 천주교 예식에서 기도의 대상은 망자가 아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망자가 아닌 천주(天主)와 예수, 마리아,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렸다. 다시 말해 천주교가 전래되기 이전 유교 상례에서 기도의 대상이 죽은 조상(祖上)이었다면, 천주교 상장예식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닌 신과 성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사례편람』에 수록된 축문(祝文)은 크게 죽은 사람, 사당(祠堂)에 모신 조상, 토지신을 대상으로 하며, 절차에 따라 내용과 구성이 다르다. 모든 축문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 망자에게 기도하는 축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封諡府君⁶⁾

오늘 세차는 연호 몇 년, 간지 초하루 며칠 간지 고자 공경하옵는 돌아가신 아버지 아무 벼슬 부군에게 아뢰입니다.⁷⁾

이 축문은 매장(埋葬)의 절차에서 망자의 신위(神位)를 혼백(魂帛)에서 신주(神主)로 이동시킬 때 읽는 축문의 앞 구절이다. 축문은 축을 읽는 날짜와 자신의 관직 및 성명을 밝히고 기도의 대상에게 고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어, 축원의 내용과 망자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준비한 제수(祭需)를 받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축문들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두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대상이라는 두 가지의 층위로 기도의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진다. 이를 통해 유교 상례에서는 기도를 받는 대상은 망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천주교 상장예식에서 사용되는 기도문의 수는 유교 예식보다 적으며, 각 절차마다 다른 축문을 읽는 유교 예식과 달리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운다는 특징이 있다. 『천

비교연구」, 『누리와 말씀』 24 (2008): 156-194. 등이 있다.

5) 최종성, 「조선시대 생사관과 사자의례: 사자의례의 동인과 지향」, 『韓國人과 日本人의 삶과 죽음』, 동북아역사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편찬, 경인문화사, 2015, 163-179.

6) 이재(李緯), 『(국역)사례편람』, 이종찬 국역, 이화문화출판사, 1992, 343.

7) 이재(李緯), 『(국역)사례편람』, 145.

주성교예규』에는 시편(詩篇), 연옥도문⁸⁾, 축문, 연령(煉靈)을 위한 찬미경(讚美經) 등이 실려있다. 연옥도문은 계응(繼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옥의 고통에 있는 망자를 위해 신과 성인들에게 청원하는 기도이다. 축문은 기도하는 사람과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죽은 부모를 위한 축문’, ‘죽은 사제를 위한 축문’, ‘죽은 형제 친척 은인을 위한 축문’, ‘죽은 모든 교우들을 위한 축문’으로 나눌 수 있다. 축문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죽은 이를 위해 천주, 마리아, 성인들에게 드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찬미경 또한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이 연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예수와 마리아를 찬미하며 그들에게 받치는 기도이다. 결국, 유교 상장예식에서는 흠향(歆饗)의 대상이었던 사자(死者)가 천주교 예식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아닌 기도를 통해 영혼의 구제(救濟)를 받아야 하는 목적의 대상으로 치환된 것이다. 이처럼 기도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받는 대상과 기도를 하는 행위자의 관계 또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장예식과 기도의 목적

앞서 살펴본 기도문을 통해, 유교 예식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망자가 천주교 예식에서는 대상이 아닌 목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상장예식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기도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행위자와 대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식의 성격 또한 달라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유교의 상장예식은 단순히 죽음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죽은 조상에 대한 효(孝)와 공경(恭敬)을 실천하는 의례이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사후에도 효의 실천이 지속되게 하는 의례이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의례의 주체는 곡(哭)을 하는 것으로 망자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죽은 사람에게 제(祭)를 올리는 절차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천주교의 상장예식에서는 조상에 대한 효의 실천이 아닌 구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로 인해 유교 예식과 성격이 달라졌으며 예식에서 사용되는 기도문의 내용 또한 현저히 다르게 전개된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신자들 영혼의 대다수가 연옥이라는 중간적 저승을 거친 후에 천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천주교 상장예식의 대표적인 기도문인 연옥도문은 그 이름에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듯, 이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이다. 또한, 축문이나 찬미경을 비롯한 기도문에서도 연옥에 있는 영혼의 안녕(安寧)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천주교 상장예식은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와 천주교의 상장례는 모두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이지만, 의례적 실천에 내재되어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의례에 투영된 두 종교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유교는 구체적인 내세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기(氣)가 흩어지는데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보았다.¹⁰⁾ 반면에 천주교는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보다 명확한 저승관을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도문에도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천주교에는 인간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주재하는 초월적인 신이 존재한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유교식 상례의 축문에서는 사자와 생자(生者)의 관계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천주교의 기도문에서는 사자와 생자 외에 초월적 존재인 신이 개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죽은 사람의 과거 행적에 따라 영혼이 그에 합당한 곳으로 가게끔 결정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죽은 영혼을 위한 기

8) 연옥도문은 현재 ‘위령기도(慰靈祈禱)’라고 불린다.

9) 유권중,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8-9.

10) 이용주, 『죽음의 정치학: 유교의 죽음 이해』, 114-115.

도를 바칠 수 있었을 뿐 망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속죄할 수 없었으며, 다른 신자들의 원조(援助)를 통해서만 죄의 보속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신자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신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교에서는 천주교와 같은 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은 분리되지만, 그 혼은 연옥과 같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지 않고 신주라는 물질적 장소에 의탁 된다. 그러므로 유교 예식에서는 죽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을 위해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받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천주교가 수용된 이후 19세기 조선의 상장예식에서 발생한 의례적인 변화를 포착하고 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대상과 목적, 각 전통이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함축되어 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유교 상장예식에서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신주에 안치될 수 있도록 죽은 사람에게 축을 읽었다. 반면 천주교 상장예식에서는 신과 성인들에게 의지하고 호소하며 죽은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해줄 것을 청하며 연령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이처럼 기도 대상이 전환된 배경에는 두 전통의 상장예식 목적과 내세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도문에 담긴 내세관을 통해 유교가 당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사후 세계에 대한 모습을 천주교는 어떻게 그려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도문은 의례의 실천양식을 기록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의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하지만 의례 연구는 주로 의례의 일반적인 절차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기도문이 의례의 지향이 담겨 있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기도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간행자 미상. 『천주성교례규』. 1864.
- 이재(李緯). 『(국역)사례편람』, 이종찬 국역.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2.
- 최종성. 「조선시대 생사관과 사자의례: 사자의례의 동인과 지향」, 『韓國人と日本人の 삶과 죽음』, 동북아역사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편찬. 서울: 경인문화사, 2015.
- 유권중.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 16 (2004): 5-32.
- 이완희. 「Dies Natalis(天上誕生日)의 전례를 위하여: 한국의 천주교, 불교, 유교의 장례예식 비교연구」. 『누리와 말씀』 24 (2008): 156-194.
- 이용주. 『죽음의 정치학: 유교의 죽음 이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5.
- 허윤석. 「1614년 『로마예식서(Rituale Romanum)』에 비추어 본 『천주성교례규(1864)』의 장례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4.
- _____. 「한국 천주교 상제례(喪祭禮) 문화의 토착화(土着化)」. 『司牧研究』 10 (2002): 148-182.
- 황영삼. 「한국천주교'상장예식'과 한국전통상장례에 나타난 죽음이해」.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5.
- Le Goff, Jacques. La naissance du Purgatoire. Paris: Gallimard. 『연옥의 탄생』, 최애리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